

주일날 1시간 남짓하는 예배와 공과공부 위주의 교육으로는 교회 교육의 사명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더구나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대중문화의 영향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조망하거나 가이드해 주는 교회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신앙이 종교생활을 넘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 안으로 침투한 물질 만능주의, 권위주의, 성공주의, 기복 신앙 등의 잘못된 세계관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교회와 학교가 후천적인 교육기관이라면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회피할 수 없는 일차적 교육기관이다.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길 바라신다(신 4:9-10). 인간은 가정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 가운데 인격을 훈련받고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특징은 부모들의 삶을 통한 모델적 교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삶은 자녀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자녀교육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은 교회에, 그리고 자녀의 공부는 학교나 학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물론 학교와 교회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최종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요 역할이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의 세계관을 점검해야 한다. 부모의 신앙이 종교생활에 그쳐, 부부관계, 재정관리, 드라마 보기, 자녀 양육과 같은 일상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델을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셈이 된다. 성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들의 학교교육이나 미디어 생활을 통해 전해지는 세계관을 방치한다면 아이들의 삶은 점점 세속적 인본주의나 상대주의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리해 보면 다음 세대가 처한 현실과 교회와 가정의 교육적 상황은 너무나도 척박하다. 이것은 이미 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아이들의 현실은 그것을 이미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책임이다. 낸시 피어시의 말처럼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훈련시키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진리가 주는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을 해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판하는 훈련을 통해 사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유경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청소년세계관교육기관인 크리스천씽킹센터(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V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전공했고,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신에 있는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세계관아카데미를,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 | 두란노

사순절 묵상 도서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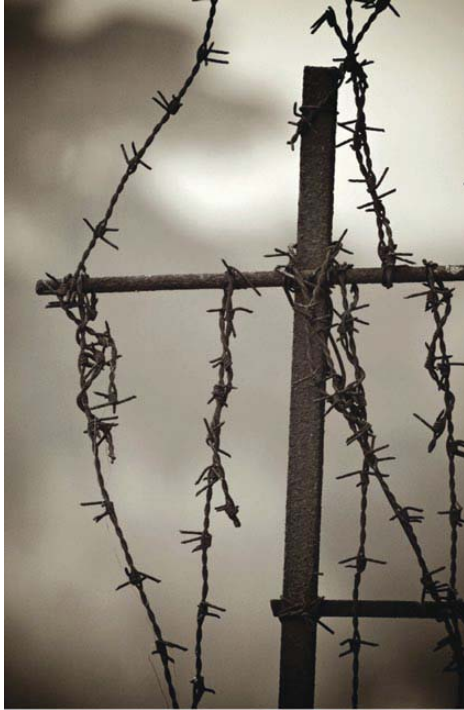
신동식 (빛과소금 교회 목사)

교회사를 보면 시대마다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다. 3세기에는 황금의 입이라 불리던 크리소스톰, 16세기에는 루터와 칼빈, 17세기에는 사무엘 러더포드와 존 오웬, 18세기에는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19세기에는 찰스 스펄전이었다. 20세기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마틴 로이드 존스이다. 시대마다 필요한 설교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20세기를 위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보내셨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설교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준 시대의 선지자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죽어서도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부른다.

그의 책은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된 것이 아니다. 모두 현장의 육성 설교를 타이핑한 것으로, 그의 설교집은 마치 예배당에서 직접 음성을 듣는 것 같다. 그는 설교를 “불타는 논리”라고 하였다

「십자가」는 ‘죽어서도 설교하는 설교자’의 명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것은 영국 런던 웨스터민스터 예배당에서 1963년 가을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구절을 가지고 총 9번 강해한 것이다. 이러한 설교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 그리고 신학적 토대와 인문학적 지식이 풍성해야 가능하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로이드 존스는 하나의 질문에서 설교를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든지 산을 옮길만한 믿음을 소망한다. 또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꿈꾼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인이려면 누구나 소망하는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로이드 존스는 그 해답을 갈 6:24에서 찾는다.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의 설교 9편은 전체가 하나로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는 1장에서 삶은 본질적으로 십고 거두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갈 6:7-8).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심고 영생을 얻는 자이다.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다. 참된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참된 복음은 바로 십자가이며,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2장에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문제를 세밀하게 다룬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십자가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이거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다는 것이다(p.46). 로이드 존스는 십자가가 거슬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고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결코 깨닫지 못했던 굉장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p.66).

3장에서는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임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는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임을 강조한다. 더구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 자비와 진리, 의와 평화가 모순 없이 공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

4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p.108).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십자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해줌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십자가 사이에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5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

6장에서는 십자가와 평화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다. 세상이 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진 혈통의 교만과 탐욕의 교만과 지식의 교만 때문이다.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평화란 없다. 십자가는 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에 이르게 하며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

7장은 십자가를 매우 독특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십자가가 증인이 되어 인간 영혼의 소중함과 삶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본질, 심판과 형벌을 증언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죄에 대한 선언이자 선포이다. 동시에 십자가는 절망하고 슬퍼하는 자들, 가난한 이들을 초대한다. 로이드 존스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일반 서민과 죄인의 친구였음을 강조한다(p.212).

8장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들이 누리는 축복을 말한다. 십자가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은혜 아래로 이끈다.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된다.

9장은 마지막 설교답게 이전 설교들을 다시 한 번 살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아는 사람이며, 사단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십자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오랜만에 「십자가」를 다시 읽으며 로이드 존스의 뜨거운 가슴을 느낄 수 있었고, 참으로 귀한 설교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는 설교를 '불타는 논리'라고 하였는데, 「십자가」는 그 정의에 잘 부합한다. 그는 복음을 정확하고 확신 있게 전했다. 다소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p.106)는 선포는 복음에 대한 그의 자세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말씀의 흥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벼운 설교들이 난무하고 긍정의 신앙이 교회를 휘감고 있다. 설교자들은 회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벼운 설교를 한다. 가벼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삶의 무거운 문제에 쉽게 넘어지고 만다.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한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마음으로 설교했기 때문이다. 죽어서도 설교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를 추천한다.



신동식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터넷 신문 더보이스의 편집위원과 뉴스미션의 칼럼리스트 그리고 문화와설교 연구원 대표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적윤리 운동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이다. 저서로는 「정직한 질문 정직한 답변」, 「세간의 사과 -성경적 세계관과 사회 변혁의 삶」, 「청년 내가 가야 할 길」, 「정직한 성도 신령 받은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승리」, 「변화는 가능하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도서」 등이 있다.